

 국토해양부 <small>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</small>	보 도 자 료	
	배포 일시 2008. 8. 20(수) / 총 2 매	
담당 부서 항만정책과	담 당 자 • 과 장 박승기, 사무관 김규섭 • ☎ (02)2110-8615, 6391 baron@mltm.go.kr	
보 도 일 시	2008년 8월 2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해양부, 포항항, 대산항 등 항만기본계획 변경

- 포항항 포스코 부두 증·개축 및 대산항 액체부두 2선식 추가 개발 등 -

- 국토해양부는 포항항 부두 증·개축 및 대산항 부두 추가 개발 계획이 포함된 5개항의 무역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 고시하였다.
-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만 시설의 적기 확충과 여건변동에 따른 항만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된 금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은,
 - 지난 6월과 7월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, 8월초 제34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(위원장 : 국토부 제2차관)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.
- 특히, 포항신항은 금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인 포항항 포스코 부두 증·개축 사업이 완료시에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한 최대 30만톤급 선박 수용 가능 부두를 확보할 예정이며,
 - 석탄 및 철광석 부두 2개 선석을 추가로 개발, 연간 754만톤 화물 처리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포항신항의 고질적인 체선·체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또한, 전체 물동량의 75% 이상이 액체화물로 특성화되어 있는 대산항의 경우는 금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선식의 추가액체 부두 개발이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될 예정으로,
 - 향후 동부두는 수도권 및 중부권, 중국 동부 지역에 석유화학 제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저장기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밖에도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마산항과 진해항, 고현항 일부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육상항만구역 해제를 통해,
 - 동부지가 인접부지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.
- 금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된 포항항 및 대산항 부두 개발은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실수요자가 민자를 투자하여 조속히 직접 개발할 예정으로,
 - 어려운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.